

寄生虫 없는 새마을

第3支援團長

藥學博士洪文和

(1) 序言

1973年 5月 25日부터 27일까지 3日間에 걸쳐서 실시된 「새마을 기술봉사단 現地指導」에 참여하여 「새마을運動」의 實情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은 꼭 다행스럽고 뜻깊은 기회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새마을 기술봉사단」을 결성하여 방송 통신 및 신문지면에 의한 새마을 기술지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사업의 一環으로 現地出張 기술지도를 실시함은 꼭 효율성 높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인은 保健分野에 소속되는 지도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焦點을 保健에 두고 시찰소감 및 앞으로의 지도사업계획을 논하기로 하겠다.

이번의 출장지도 대상이 된 새마을은 충청남도의 大田市 주변 대덕군, 공주군 및 아산군등의 새마을들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아산군 온양읍 좌부리」 새마을은 本 기술봉사단과 자매 결연을 맺기에 까지 이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시찰하였다.

(2) 시찰소감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의 특색으로서 忠南大學校, 鄭鍾學 教授가 발표한 바(평가교수단: 새마을운동 심포지움(1972. 11)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精神開發과 社會風土의 改革」을 첫째로 꼽고 있다.

即 첫째로 지도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있어서는 종래 「미루는 惰性」을 「즉각 實踐」하는 자세로 바꾸고, 「안 되는」方向에서 「되는」方向으로, 「君臨하는」 자세에서 「도와주는」 자세로 바꾸므로 새마을 운동에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先導的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밑바탕이 되는 道民의 기풍을 「못한다」는 否定的인 氣質에서 「하면 된다」는 肯定的 氣質로 바꾸고, 「傍觀」하는 消極的인 자세를 「參與」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었으며 每事에 「주저하는」 자세를 「앞서가는」 자세로 一新하였으며 이 뿐만 아니라 住民參與와 道民總和體制가 確立되어 있는 것이 忠南道 새마을運動의 特色이라고 指摘한 것을 읊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 비록 3日間의 짧은 시찰이었지만 이와 같은 지적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소박하면서도 드높은 의욕을 찾아간 마을마다에서 느낄 수 있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지련해야 하겠고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는 열성이 넘치고 있음을 보았다.

土壤의 PH를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의 示範을 凝視하는 눈초리라든가 苗木에 의한 무궁화 苗木 만들기에 있어서의 細部의 인 질문 응답 또는 溫度計나 體溫計가 나타내는 溫度의 의미를 科技總金會長과 친지하게 문답하는 모습을 볼 때 농민들이 非科學의 空論을 떠나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구체적인 合理性을 따지는 모습에서 우리 농촌의 科學化가 이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이대로만 계속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처럼 교육보급율이 높은 나라의 농촌근대화는 틀림없이 단시 일내에 이룩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의 成果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자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成就 또한 적지 않음을 보았다. 특히 保健과 直結되는 生活環境의改善은 눈부신 바가 있다.

예컨대 마을 안길擴張, 小河川改補修, 下水溝改善, 簡易給水施設, 共同우물, 共同빨래터, 농촌 표준주택 등에 있어서 커다란 實積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열거할 필요도 없고, 마을 전체가 깨끗하고 清潔하게 變貌된다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 向上과 생활환경의 淨化와는 적접적인 函敷관계에 있음은 위생학의 근거를 들을 필요도 없는 自明之理인 것이다. 더욱이 메탄까스 施設보급에 의하여 연료의 근대화는 물론이고 人畜의 排泄物을 腐熟시킬 契機가 되어 寄生虫의 摧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些少한 문제인것 같으면서도 하나의 劃期的인 위생운동을 발견하여 호듯하게 생각한 것은 「밥상덮개」 사업의 展開이다.

이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生活習性이 及其也是 傳染性 疾患에 대한 防疫想을 生活化하는 基盤이 되는 것이다.

保健의 向上을 언제나 「豫算타령」에 결부시켜 巨大한 政府事業에만 依存하면 腐習의 脱皮는 비록 지금은 적개 보이드라도



<새마을의 保健向上을 強調하는 筆者>

크게 評價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體로보아 새마을 운동의 現時點의 重點이 環境改善所得增大 등의 눈에 보이는 사업에 두고 있는 듯하여 保健教育이나 衛生環境등에 있어서는 많은 사업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부엌改良, 廉舍改良, 共同우물改良 등에 있어서 아직도 地上汚物에 의한 地下水污染의 우려가 完全히는 제거되지 않고 있다든가 우물물의 鹽素消毒의 보급, 寄生虫驅除 및 水因性傳染病防疫에 대한 위생지식의普及등이 아직도 활발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指導事業에서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으로 느꼈다.

(3) 새마을 運動과 保健事業

우리나라가 앞으로 醫療, 保健을 어떻게 改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長·短期展望과 綜合的基本政策은 이미 1967年에 科學技術處가 마련한바 있다.

이에 依하면 「……豫防이 可能한 疾病 例컨대 傳染性疾病이나 寄生虫疾患 등의 大部分이 消退할 것이며……」「……代表의 인 國民病으로서 莫甚한被害를 招來하고 있는 結核의 罹患率이 現在의 5.1%에서 1% 以下로 低下될 것이다. 또한 保健敎育의普及과 環境衛生의 改善은 寄生虫의 感染率을 現在 90%에서 5% 以下로 低下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가 하면 寄生虫疾患撲滅의 細部計劃으로서 保健敎育의普及, 食生活의改善, 集團의 治療事業, 環境衛生의 改善, 國產驅虫劑의 開發等을 通하여 現在의 90%를 1970年代中에 50%로 1980年代에는 10%로 減少시킨다는 것을 들고 있는.

이와 같은 傳染病의豫防이나 風土病의 寄生虫病撲滅은 오로지 「保健敎育의普及, 環境衛生의改善, 食生活의改善, 集團의 檢索 및 治療事業」等을 通하여서만 可能하다. 이와 같은 基本的인 衛生思想 및 衛生環境의改革은 國民生活의 科學化라는一大革新의 도처히 이루어질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그럼으로서 從來는 多元化된 制度上의 矛盾, 日政時의 警察行政의 殘存인 取締行政의 保健行政등으로 말미암아 効率의 인

發展이 크게 沮害된 바도 있으나 오늘날의 舉國의in 새마을運動은 모든 機關이 긴밀한 相互協力아래 이루어지는 自發的인 운동인만큼 이제야 진정한 實效를 거둘때가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運動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衛生思想 및 衛生環境을 科學化하는 絶好의 賽스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指導計劃

이번의 現地답사를 통하여 本 技術奉仕團이 集中的으로 技術支援을 할 對象으로 作定한 「아산군 온양면 좌부리」에 대해서 保健向上인 면에서의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할 것인가?勿論 完全한 計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保健現況을 파악하기 위한 動態統計의 確立을 우선적으로 期하여야 하겠다. 「좌부리」 마을 住民 786名中 大卒 17名, 高卒 49名, 中卒 13名으로 中等敎育 以上을 받은 사람이 79名인 約 1割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保健敎育普及을 위한 일꾼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有利한 조건에 놓여 있다.

保健運動을 從來의 施療置重으로부터 脫皮하여 住民各自의 衛生思想을 科學化시켜 줌으로서各自가 스스로의 健康을 建設하겠다는 意慾을 培養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寄生虫撲滅 및 水因性傳染病 防疫을 위한 새마을運動으로서 아래와 같은 일을 지도하고자 한다.

① 새마을 학교에서의 保健강좌 실시

寄生虫病 및 水因性傳染病이 現代文明社會에서 얼마나 羞耻스러운 것인가를 認識시키고 實物標本供覽을 通하여 얼마나 두서운 것인가를 啓蒙하고 그豫防法이 生活環境의 淨化 및 食生活習性的改善이라는 지극히 쉬운 일이라는 것을 周知시킨다.

② 保健새마을 지도자 養成

大學卒業者 17名에 對하여 顯微鏡에 의한 寄生虫卵檢索法을 訓練시켜서 定期의으로 마을사람 全員에 對한 檢便을 實施하여 保虫者를 索出한다.

③ 學生奉仕活動

保健系 大學生의 放學期間中の奉仕活動을 利用하여 保健지도를 하게 한다. 특히 寄生虫豫防 및 驅除와 食水消毒에 의한 水因性傳染病防疫에 重點을 둔다. 클로르 칼카(표백분)에 의한 食水消毒의 기술이 전연 주민들에게 납득이 되어있지 않고 被動의으로 面에서 나와 하여 주는 것을 영문모르고 기다리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다. 자기가 마시는 食水나 채소는 자기가 소독을 하여야 하겠다는 인식을 부식시켜준다.

④ 驅虫藥은 自給이 可能한 藥草로서 충당하는 方法도 지도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大韓寄生虫協會, 保健研究院, 大學醫學協會, 大韓藥師會, 學校醫, 學校藥師 등의 協力を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管轄 保健所의 活動을 主體로 하여 우리 奉仕團의 지도는 어디까지나 協力의이라는 것을 말할 나위도 없다.